

## 고잔 공원

고잔 공원에서는 과거 지역의 영주 및 유지의 동상과 기념비, 역사적 건축물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며, 14세기 이후 야마구치 시의 역사를 오늘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는 매화나무와 벚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수국 등의 나무를 심어 일년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셋슈 동상

공원의 입구 근처에는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수목화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선종의 승려인 셋슈(1420~1506)의 동상이 있습니다. 셋슈는 지금의 야마구치 시에 공방을 마련하고 오랜 세월을 걸쳐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유명한 몇몇 작품도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공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조에이지 절의 정원은 연못과 돌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는데, 바로 셋슈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루리코지 절 오층탑

공원 안을 반시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원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인 루리코지 절 오층탑에 도착합니다. 이 오층탑은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지금의 야마구치 현을 다스리던 오우치 가문의 영주 오우치 모리미(1377~1431)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1442년경에 완성된 이후 붕괴로 인해 재건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한 역사적 및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 루리코지 절과 말에 탄 오우치 히로요

공원 입구에서 곧장 직진하면 루리코지 절의 본당이 있습니다. 1471년에 건립된 루리코지 절은 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말에 탄 오우치 히로요(1326~1380)의 동상이 있습니다. 오우치 히로요는 야마구치 분지를 개발하여 지금의 야마구치 시에 해당하는 도시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류테이와 로산도

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장소는 에도 시대(1603~1867)의 역사적인 건물인 진류테이와 로산도입니다. 진류테이는 상인 가문의 별장으로, 로산도는 조슈 번(지금의 야마구치 현) 제 13대 번주의 다실로 지어졌으며, 1868년 메이지 유신의 성공에 기여한 반막부 세력이 회합의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막부가 지닌 정치적 권력의 종언과 천황의 주권 회복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류테이에서는 건물 내부의 전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1층에는 대정봉환(1867년 막부

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한 선언)을 요구한 기도 다카요시(1833~1877) 등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기도 등 조슈 번의 주요 인물들이 실제로 밀회를 가졌던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 *모리 가문의 묘소*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오우치 가문을 대신해 모리 가문이 조슈 번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로산도 뒤편에 있는 모리 가문의 묘소에는 조슈 번 제 13대 번주인 모리 다카치카(1819~1871)와 조슈 번의 마지막 번주였던 아들 모토노리(1839~1896), 손자 모토아키라(1865~1938)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모리 다카치카는 조슈 번과 사쓰마 번(지금의 가고시마 현), 도사 번(지금의 고치 현) 간에 맹약을 맺고 막부군에 대항했습니다.